

문제 1

1. 일단 형식적으로 문단이 너무 나뉘었는데, 큰 내용상의 구분이 없으면 문단을 너무 많이 나누는 습관은 가지지 마세요~
2. 일단 제시문 (가)와 (나), (다)를 아름다움의 인위성을 기준으로 나눈 형식은 좋습니다, 하지만 하나 추가하자면 제시문 (가)에서 인위성을 비판한 것이 인위로 인한 아름다움을 비판하지는 않았습시다. 인위 -> 아름다움에서 인위자체는 부정되었지만 저 과정 전부를 비판하지는 않았어요. 즉, 자연스럽게 하는게 좋지만 자연스러움이 아름다움 자체라고 단정 지을수는 없답니다.
3. 그리고 제시문 (나), (다)를 타인의 영향력으로 나누는 것 자체도 논리가 이상합니다. 제시문 (다)에서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셨는데, **(꾸민티를 내지않는다는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구성되므로 타인의 역할또한 중요하다.)** 이 자체는 타인의 시선이 필요해야 아름다움 자체가 구성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제시문 (다)자체의 논지도 아름다움이란게 결국 자신의 꾸밈 + 타인의 시선이 동시에 필요하단거죠. 그런데, 타인의 시선을 배제하는 논지는 논리가 이상해집니다.
4. 따라서 (나) (다)를 비교할 때도 논지가 오류이며, (가)자체도 단정지을 수 없어 논지가 어색해집니다.

제시문에 기반하여 비교하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:)